

▶ 제18회 영호남연극제,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서 개최

때론 웃음을... 때론 감동을... 다음주 극장에 한바탕 즐거움으로

제18회 영호남연극제가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 아하이트홀과 판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영호남연극제는 연극을 통한 지역·계층·세대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갖고자 영호남연극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영호남연극제 집행위원회와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진주지부·구미지부·순천지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연극제에는 부산·전주·진주·서울·순천 등 5개 지역 극단이 참가해 열연을 펼친다. 티켓은 전 좌석 1만 원.

아하이트홀·판소극장에서 무대
전주·서울·부산·진주·순천 등
5개 지역 극단 참가해 열연 펼쳐



제18회 영호남연극제가 오는 28일부터 전주 아하이트홀과 판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문화영토관의 열연 무대.

▲부산에서 온 '어니언킹'의 개막무대
연극의 개막은 극단 어니언킹(부산) '별이 오는 소리'로 일한다. 작품은 흥감동이 된 착각에 빠져 사는 치매 노인 길동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과 주변인들의 한바탕 소동을 해학적으로 그린다.

***29일 오후 7시 30분 아하이트홀

▲전주 '판'이 선보이는 '헤이, 부라더'
문화영토관(전주)의 '헤이, 부라더!'는 직장인 종서는 자취집에서 쫓겨나와 저렴한 집세 배우지못한 소용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까칠한 성격의 종서와 사람이 그리운 소용은 티격태격 갈등을 빚는다.

***30일 오후 7시 30분 판소극장

▲전주 '현장'의 대나무 인형극

극단 현장(전주)은 대나무 인형극 '신통방통 도깨비'를 선보인다.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극으로, 욕심 많은 형이 아우의 재물과 복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도깨비들에게 혼쭐이 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오전 11시 판소극장

▲서울 '말판'의 코미디극
극단 말판(서울)의 '병자삼인'은 여덟남비를 당연시 하는 세 명의 남자가 벌이는 코미디극이다. 병자삼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아내의 구박을 피하기 위한 묘책으로 귀머거리, 병어

리, 장님 행세를 하기로 한다.

***9월 1일 오후 7시 30분 아하이트홀

▲순천 '드라마스튜디오'의 폐막무대
연극제의 폐막작은 극단 드라마스튜디오(순천)의 '쌍나 마고자 다. 노인들의 안식처인 탑골공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낡은 것을 무조건 없애려 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맞선 노인들의 붕기를 겪은 작가 현수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9월 2일 오후 3시 판소극장 /정해은 기자

기록문화 콘텐츠 교류·출판물도 교환

완판분문화관, 거제포토수용소 유적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완판분문화관(관장 안준영)은 거제포토수용소 유적박물관(관장 김길훈)과 기록문화 콘텐츠 활용과 재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와 역사, 예술, 교육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 또한 교육·행사 상호 연계 등을 통해 기록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고, 출판물과 관련 자료도 교환하기로 했다.

현재 거제시는 한국전쟁 관련 거제포토수용

소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포토수용소 유적 박물관은 완판분문화관과 함께 포로와 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첫 번째 기록문화 콘텐츠는 '무운장구 태극기'이다. 이는 6·25 참전 용사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로, 무인으로서의 운수가 길고 오래 가기를 바라는 무운장구(武運長久)와 참전 병사의 비장한 각오가 적혀있다.



완판분문화관은 무운장구 태극기를 목판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이미지 보정과 판각 작업을 수행하고, 포토수용소 유적박물관은 이를 교육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결성 10년차 현악 사중주단

전주에 온다



'노부스 콰르텟', 내일 소리문화전당서 공연

올해로 결성 10주년을 맞은 현악 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이 전국투어 공연으로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찾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욱, 비올리스트 이승원, 첼리스트 문용휘로 이뤄진 노부스 콰르텟은 실내악 불모지에 가깝던 우리 음악계에서 프론티어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노부스 디케이드'에서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하이든 현악사중주 62번 '황제'와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2번 그리고 베토벤 현악사중주 14번이다. 특히 2부에 연주하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14번은 2018년부터 시작될 그들의 베토벤 현악사중주 사이클(전곡 연주)의 서막 같은 선곡. 현악사중주의 정점에 놓이는 베토벤 후기 현악사중주 곡들 중에서도 가장 대곡으로 꼽히는 이 곡을 노부스 콰르텟이 한국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서운 잠재력을 지닌 그들의 새로운 10년을 가늠케 하는 무대이다. 공연은 오후 7시30분 전당 연지홀에서 진행된다. 좌석은 R석 6만 원, S석 4만 원. /정해은 기자

허성배씨 '시사문단' 신인상 수상

허성배(81·사진)씨가 월간지 '시사문단' 8월 호에서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당선작은 '초가삼간' '빈 프락의 고향' '우리 집 정원' 등 3편이다. 심사위원들은 "'초가삼간'은 모놀로그(독백) 같은 시로, 맞춤법을 붙여 쓴 것은 시 창작 중 의도적인 문법과파"라며, 이는 특이한 발상이라고 평했다. 허 씨는 당선 소감에서 "자연과 글은 인생의 좋은 벗이다. 글을 읊미하는 것은 우주를 둘러보는 것 같다. 인간의 마음이 닿은 것은 어떤 소재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순수함과 온전함이 배어 있는 시를 쓰고 싶다. 자연과 좀 더 가깝게 만나는 수고를 즐겁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주문화재단, 마을술사 시민위원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마을 술사 양성'을 위한 마을이야기 및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사업을 진행, 28일까지 시민위원을 모집한다.

'마을술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관광객 등 다양한 수요층에게 해설 할 수 있는 마을 이야기 선비(해설사)를 뜻하는 신조어다. 재단은 첫 사업대상지로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전주 시 완산동을 선정하여 마을술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마을이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을술사 양성 컨설팅 사업' 시민위원의 지원자격은 완산동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기억을 갖고 있는 완산동 주민 또는 전주 시민이며, 최대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위원은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가와 함께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술사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개발 수당이 지급된다.

교육개발과정은 완산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알아가고, 완산동 내 숨은 명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한국의 '송크란' 를 꿈꾸다!

무주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2017 무주 남대천 물 축제

2017. 8. 26(토)~27(일) / 9. 2(토)~9. 3(일) (4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워터 빌리지

남대천 썸머 콘서트

물싸움 WATER로 전쟁

패밀리 체험존

물총, 우비, 비치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워터로산이 산시 운영됩니다. 주최·주관·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 문의(063)320-5702/324-3474